

다윗-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다

제1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9 페이지에 나와있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사무엘하 1:1~18

묵상할 말씀 :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4절).

찬송 : 286장(통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기도 : 말은이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당신이 존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나 일상의 태도를 지니고 있나요?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저녁때까지 슬퍼하고 금식한다(11-12절).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처형한다(14-16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자기 원수로 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울이 여호와와 기름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대신에, 오히려 조가를 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향한 마땅한 자세를 백성들과 후세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다윗이 조가를 지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왕조 교체와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적대관계였지만, 사울을 존귀한 자로 기리는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사울 지파(베냐민 지파)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다.

도움말 :

- 슬픈 노래(17절, 히: 키나):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탄식의 노래로,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시와 구별된다.
- 조상하고(17절): 애가를 부르다, 탄식하다, 슬피 노래하다.
- 유다 족속(18절): 사울 왕은 베냐민 족속이었고, 다윗은 유다 족속이었다.
- 활 노래(18절): ‘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이 지은 조가의 제목이나 제목의 일부로 이해한다.
- 야살의 책(18절): ‘야살’은 똑바른, 옳은, 의인 등의 뜻이며, 오늘 본문과 여호수아 10:12-13에 등장하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다.
- 가드, 아스글론(20절): 아스돗, 가사, 에글론과 함께 블레셋 다섯 성읍에 속한 도시이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했고,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에 집중하며 경청합니다.



말씀 깨닫기

1. [관찰 질문]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맨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1-12절)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11-12절).

[해석 질문] 다윗은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14-16절 참조)

다윗이 자기와 깊은 우정을 지녀왔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자였다. 따라서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안도감과 더불어 기쁨을 줄 수도 있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기뻐하는 대신에,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14, 16절 참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었다.

[거울 질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자.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도록 권한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눈 후에는,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잠 24:17),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마 5:44)고 명한다. 즉,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서도, 감정을 따라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자비와 기도로 반응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나눔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2. [관찰 질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려준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3-16절)

그를 처형시켰다.

[해석 질문] 다윗은 자기의 정적을 제거했다고 말하는 그 청년을 왜 그렇게 엄하게 다루었을까요?

사무엘상 31:4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의 요청에 의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한다. 아마도, 그 아말렉 청년이 정말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알기에 다윗의 선심을 사기 위해 이렇게 거짓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윗에게는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정말 죽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말렉 청년이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

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16절). 다윗은 자신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에게 자신이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자기 손으로 허무는 죄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공을 세우고자는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경히 여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거울 질문] 아말렉 청년처럼 잘못된 선택이나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때 무엇을 느꼈나요?

인도자는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업무 성과를 과장해서 보고한 적은 없나요? 혹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을 부풀려 말한 적은 없나요? 그리고 그러한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도 물어보자. 일시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죄책감, 불안,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3. [관찰 질문]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했습니까?(17-18절)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고, 또한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명했다.

[해석 질문] 다윗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배경 설명 참조)

다윗은 그가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과 더불어,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 다윗은 자신이 조가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유다 족속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한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그것을 부르게 했다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들을 높이노 노래를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가르쳐 부르라고 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을 통합하는데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던 것이다.

[거울 질문]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존중과 애도를 선택했다. 이유는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부모님들, 교회의 직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이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끝까지 존중할 것이다.



말씀 살기

*인도자는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나눔 후에는, 그러한 말씀을 한 주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자.

1.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 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든지 짜증, 원망,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감정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감정들을 숨기기보다, 그분께 가지고 나와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과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 물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렇게 대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롬 5:8 참조) 혹은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롬 5:10 참조)라는 것이다.

2. 우리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기, 칭찬이나 격려 한 마디 남기기,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공감하기, 비판보다는 질문으로 대화 이어가기,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기 등.